



통권 123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2. 1. 17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힘차게 떠오르는 새해 태양



북한산에서는 12월 31일 대설주의보가 내렸고
기상관계로 신년 아침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홀한 새해 태양은 눈부시게 떠올랐고
백운대에 오른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였습니다.
올해는, 떠오르는 그 태양처럼 가슴 벅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 목 • 차 •

신년사 권오현회장 • 2 / 감옥에 보내는 시 유병문편집위원 • 4 / 감옥에서 온 새해인사 • 8 / 장기수 선생님들께 드리는 편지 김호 편집위원 • 10 / 민가협 어머님들께 드리는 편지 고평희수습간사 • 12 / 양심수들께 드리는 편지 모지회 회원 • 13 / 출소장가수 김선분 선생님을 찾아서 오영순 편집위원 • 16 / 병보석 중인 양심수 문재룡 선생님을 찾아서 유영순 편집위원 • 17 / 한수정 회원을 찾아서 이창희 간사 • 18 / 야간산행기 고평희수습간사 • 19 / 회원교육 강좌보고 송창학 회원 • 25 / 특집 '신인영 선생님 별세소식' • 27 / 고 신인영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양계숙 회원 • 28 / 나의 삶 나의 일터 문숙희 편집위원 • 29 / 광고 • 35 / 재정보고 • 35 / 회비납부 • 3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Td, 765-5282 Fax, 745-5604 회원모임방 Td, 02-888-4470 Fax, 02-888-4470

반통일 수구냉전에 맞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의 길로

—억압·독점·패권·살육에 맞서 자유·평등·정의·평화의 길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러분

200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부당한 탄압에 맞서 양심수석방과 후원활동에 헌신과 성원을 다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에 평화와 안녕,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1년 새해를 맞으면서 다짐했던 과제들을 생각합니다.

30년만의 폭설과 강추위속에서 3대개혁 입법추진을 위한 명동성당 노상농성 투쟁을 비롯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결의하고 양심수와 정치수배가 없는 세상을 이룰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초국적자본이 강제하는 구조조정-정리해고를 반대하고 농산물가격보장, 농가부채해결 등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기층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쟁때 양민학살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범죄를 고발하고 폭격장폐쇄, 미군기지반환, 보복전쟁 반대 등 주한미군 철거투쟁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6·15공동선언이 있게 되기까지 온갖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민간통일운동을 주도해 온 범민련·한총련에 대한 합법화투쟁도 다짐했었습니다. 이 모든 투쟁과 주장 요구들은 자주민주통일로의 민족적 과제이고 사회정의 실천과제이면서 양심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필수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난 오늘 그 다짐했던 일들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또다시 고스란히 받아안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두 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지만 그 엄중한 과제를 이루어내기엔 이른바 활동가중심, 또는 운동원 중심만으로는 힘의 한계를 들어냈습니다. 보다 폭넓은 대중속으로의 인식지평을 넓혀나가야 하고 그에 따른 조직사업과 논리창출이 요구되

었습니다. 다른 한편 과제이행 책임이 일차적으로 민족민주진영의 역량부족에 있었지만 나라 안팎의 수구냉전세력과 세계화를 내세운 초국적 자본행패 그리고 패권주의 침략세력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원여러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민족민주운동안에서 고유한 임무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수 석방과 후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양심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을 없애야 하고, 국가보안법의 존립명분이 되고 있는 남·북사이의 대결구도가 허물어져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북사이의 반목대결을 부추기고 있는 외세를 몰아내는 일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수 석방운동은, 민족민주운동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법과 제도를 없애거나 고쳐야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법과 제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폐지는커녕 집권당에서 말해왔던 개정안조차 국회상정도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야당들은 한 술 더 떠 개정조차 반대하고 수구냉전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가나 법 또는 정치행위는 외세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구성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구성원 사이의 정의·평화와 인간다운 삶과 행복추구를 보장하는데 존재가치가 있지 부와 권력독점을 합법화하거나 양심적 주장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표방하고 인권보장을 말했다면 적어도 양심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에도 406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고(국가보안법 적용 117명),

헌정권 출범뒤 모두 1871명의 양심수를 잡아 가두었습니다(국가보안법 적용 923명). 다른 한편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무기수, 장기수를 포함한 수천명의 일반 형사 피의자는 사면·석방하면서도 양심수는(특히 중증환자와 70살이 넘는 노인마저도) 단 한 사람의 사면 조치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당선된 대학의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는 이 땅의 사법규정 체계에서는 자동적으로 이적단체 가입이 되고 곧바로 구속되거나 정치수배로 쫓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구이며 헌법기관이기도 한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이 정쟁경쟁을 통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문제나 기본권(인권) 보장문제, 나라안팎의 정의·평화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법당국에서 처리할 문제를 갖고 한 해 모두를 오직 정권장악을 위한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아까운 국민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행문제는 통일운동을 해 오던 사람들만의 희망이나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남과 북·해외 거래 모두가 함께 해야 하고 계급·계층을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이며, 사상과 이념 제도와 정견차이를 넘어 남녀노소와 종교적 차이없이 그리고 남북 당국과 군·관·민이 함께 해야 할 전 민족적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선언 2년차를 맞는 2001년엔 선언내용의 보다 폭넓은 구체적 실천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한 해를 통털어 볼 때 그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3월에는 당국간 대화가 끊어졌고 다시 민간통일운동단체의 노력으로 당국자 회담(장관급)이 열렸으나 또다시 중단상태로 해를 넘겼으니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선언정신을 지키지 못한 데 있다하겠습니다. 외세간섭과 그 부당한 간섭을 배격해 내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외세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세를 등에 업고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려는 나라안의 수구냉전 정치세력과 언론이 반역사적 대열에 함께 했습니다.

2000년 10월12일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등 전면적 관계개선과 클린턴 미 대통령의 평양방문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조·미공동코뮤니케를 발표했었습니다. 이는 반세기가 넘게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질서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전쟁상태를 발미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돌아가야 하고 남북은 6·15공동선언이행에 한걸음 다가서는 결과를 맞을 터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북에 50년 넘게 묶어 놓고 있는 경제 봉쇄가 풀릴 것이며 군사적 대치가 사라진다는 때 남과 북은 막강한 군사비를 경제건설과 사회 복지비로 쓰이게 될 터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동코뮤니케를 파탄내고 있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자 전 정권이 합의한 공동코뮤니케를, 적어도 국제조약 성격을 가진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있었습니다. 대북강경정책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군산복합체로 지지기반으로 하는 부시정권은 MD계획을 비롯한 군사모험주의, 패권주의 등 힘에 의한 세계지배정책으로 치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적을 만들어 전쟁을 못해 발광하는 나라였습니다. 냉전 시기였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소의 군사비 규모는 비슷했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팽창되고 있었습니다. (미·소 군사비 대비 - 1980년 1280:1250, 1985년 1480:1350, 1990년 1710:520, 1995년 1880:360, 2000년 2520:320(억달러)). 2000년의 미국군사비는 러시아의 거의 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13일 미하원에서 통과된 2002년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은 무려 3433억달러(전년비 17%)이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군사비를 줄여 기아와 질병을 구제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을 미국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정권 들어서면서 교토기후협약을 탈퇴하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LTBT)비준 거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합의한 조·미공동코뮤니케를 무시하고 새로 미사일·핵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재래식 무기와 휴전선 부근 병력배치문제 등을 들고 나와서 조·미 사이뿐 아니라 남북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했을 때 세계의 지성과 양심들은 그 비극적 참사에 조의를 표하면서도 왜 이같은 테러를 당했느냐는 데에서는 미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석유이권을 걸머쥐고 있으면서 계속된 군사적 우위를 통한 세계지배, 그리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구두에 다른 사람의 발이 맞지 않는다하여 톱으로 발길을 자르려하는 미국은 이른바 보복전쟁을 저질렀고 반격조차 해오지 않는 척박하고 가난한 나라에 수백억 달러에 해당되는 폭탄을 퍼부어 수천명 양민을 죽이면서 수백만 난민을 만들고 굶주림과 추위에 죽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테러리스트였습니다. [토라브래동굴지역에서 알·카에다 병사들이 제의한 항복협상을 거부하면서 포로로 잡기보다는 섬멸작전을 강요한 일이나 [마자르이사리프 부근 ‘칼라이창이’ 수용소에서의 포로 학살 사건 등은 반인륜은 물론 포로에 대한 국제협정 따위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가 비수를 들고 날뛰고 있는 격입니다.

미국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호전성은 ‘아프칸’에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 필리핀이 거론되고 특공대 파견도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땅 이북에 대한 위협·공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폴 브래머 미국의 전 테러 담당대사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라크·이란 등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다. 이들이 더 이상 테러를 지원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북한도 미국이 오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되며 아프칸에서 보듯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승리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공갈이었습니다. 부시도 2002년은 ‘전쟁의 해’라고 말하면서 이라크·소말리아·수단·필리핀을 가리키며 테러비호세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12/17일), 미 합참의장 리처드 마이어드도 소말리아 등이 잠재적 공격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12/19일). 미국은 또한 이북과 이라크의 군사시설을 겨냥 신무기를 개발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미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미국가안보에 대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위협 평가표’에서 이북·이라크·이란 세 나라를 러시아·중국 다음가는 제3의 국가안보 위협국으로 분류하면서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중이라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가 보도했었습니다.(12/3일)

그러나 미국의 확전야심에 대해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 자신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전에 찬성’은 50%이고 반대가 38%였으며 서유럽에서는 32 : 37, 아시아에서는 27 : 58, 이슬람국가에서는 32 : 59로 반대 비율이 많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국이익만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 : 아니다’에서는 미국에서 28 : 70 인데 비해 서유럽은 66 : 34, 아시아는 65 : 25, 이슬람은 69 : 25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나치게 이스라엘에 우호적이다’란 설문에서는 미국 35 : 45, 서방 68 : 32, 아시아 82 : 10, 이슬람 90 : 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이러한 여론조사를 반영하듯 세계 곳곳에서는 보복전쟁반대와 확전반대의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미국의 아프칸 침공이 있으면서 반전평화 시위가 계속돼오고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미국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말이 길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을 확보한 나라라면 몰라도 이 땅에서는 미국의 행동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으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었으며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결정적 역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은 김대중정권의 대북포용정책(포용정책이란 말도 민족적 모욕이다)을 걸으려는 지지한다하면서도 ‘정치군사 및 다른 대북 사업일체를 미국과 사전 협의’케 함으로서 공동선언 당사자로서의 운신의 폭을 좁게 했습니다. 예로서, 남북은 전력공급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9·11테러 이후 미국과 관계없는 이 땅에 비상경계조치가 있었고 10·8보복전쟁과 관련 남한의 미군기지에 전폭기가 추가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 협력 관계에 들어간 이 땅에 미군사령관이란자가 주적론(이북

에 대한)을 제기하며 패트리엇 미사일배치를 말하고 중장기적으로 10조원에 이르는 무기 판매계획을 세우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벌써 10년전에 용산지역 등 미군기지 반환문제를 말해왔었는데 이제는 아주 영구 주둔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2011년까지 사령부 중심으로 개편, 용산지역, 오산과 군산기지, 동두천지역, 평택, 대구지역, 부산지역 등의 특수기능지역으로 개편한다고 주한 미군소식지 <같이 갑시다-let's go together>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제 마음대로 용산, 대구 등 미군기지에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주가 바로 서울지수를 결정하고 장사하는 기업이나 이익이되는 부동산도 그들이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덕적이며 침략야욕이 전혀 없는 국가로부터의 좋은 의미에서 간섭을 받는다 해도 주권국가로서 모욕일진대 앞에서 지적된 미국이 이 땅에서 이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선량한 미국민과의 우호관계를 가질수는 있어도 패권주의·제국주의·군사주의 미국은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패권주의 미국에 의존하는 수구냉전세력이 커지면 그만큼 전쟁위험은 더욱 커지고 마침내는 공멸하게 될 것이며, 한·미·일공조를 파기하고 6·15공동선언정신으로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 스스로 짚어질 남·북공조를 철저히 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미·러·중·일 주변 4강이 대든다 해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남북사이 당국자 대화가 잠시 멈추고 있는 동안에도 민간 통일운동 부문에서는 지난 한해 큰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북노동자·농민대회를 비롯하여 6·15공동선언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가 금강산에서 열렸고, 2001민족통일대축전을 평양에서 가졌습니다. 남과 북의 노동자·농민·청년학생·여성·종교인·문화예술인·통일운동 단체 등 부문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협력 하는데 큰 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 수구냉전 정치세력과 언론 그리고 공안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었지만 결코 자주·통일을 위한 시대적 흐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직접 거리에 나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목요집회, 명동성당 토요집회, YMCA앞 토요캠페인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에서도 큰 성원을 해 주시어 비록 큰 돈이 아니지만 양심수의 확고한 지지와 연대의 뜻이 되는 영치금을 모든 양심수에게 다달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수 연행에 항의와 면회투쟁, 재판방청, 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천하여 양심수와의 마음속 거리를 좁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 1차송환에 이어 2차송환 희망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정순덕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일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 여러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는 슬픈 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9월 2일 송환되신 이종환, 윤용기선생님이 북녘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이상필, 김영수선생님께서도 남쪽에서 통일의 그 날을 보시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옥순, 이 현 회원님이 젊은 나이에 아깝게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회원 여러분 6·15공동선언이행은 그 어떠한 방해책동에서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선언이행에 '민족민주운동 단체와 연합·연대하여 힘차게 벌여나갑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이 살아있고 94명의 양심수가 갇혀있으며 수백명이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습니다. 지난 해 못다 한 '국가보안법도 양심수도 정치수배자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헌신과 투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송환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남쪽에 남아계신 고봉희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반드시 재상봉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새해에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빌겠습니다.

2002년 새해 아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현

정직의 힘을 믿는다

- 옥중에 갇힌 자주민보 박준영 기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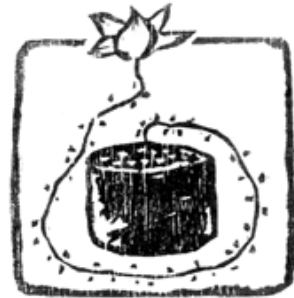
유병문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민족21 기자

정직은
여전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가?
포승에 묶여 창살 안에 들어앉은
너를 그리며 되물어본다

겨울을 겨울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한 세상
생활비와 나이 서른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선
감수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
정녕 삶과 역사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철부지로 꺾히되는 세상에서
정직하기 위해선 힘이 든다
때로 눈물도 흘러야 한다
너처럼 포승에 묶여야 할 때도 있다

때문에 정직은 아름답다
정직하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힘을 다해 싸우지 않는 싸움이
승리한 것을 본 적 없다



정직은 끝끝내 패배하지 않는
우리의 힘!

말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다면서
몸으론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직의 산길이 고달플수록
삶의 산봉우리는 아름답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말해왔던가

오늘도
두려움을 모르는,
아니 두려움과 싸우며
끝내 두려움에 이기려는 너를 보며
이 굴절의 시대에 다시 묻는다

정직하지 않은 우리가
무엇을 참되게 이룰 수 있느냐고
어떤 진실의 힘으로 세상을 밀어갈 수 있느냐고

“열매는 꽃을 피워본 씨앗입니다”

선생님!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줄지에 ‘양심수’라는 명칭을 얻게 되고 선생님같은 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달 받는 양심수후원회 소식지와 영치금으로부터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 그 커다란 후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못 드렸지만 언제나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할 일 많은 세상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 없으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투쟁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도 부디 건강하시고 만사형통을 빌겠습니다. 양심수후원회의 모든 식구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서울구치소에서 임태열 드림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김병학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새해에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땅 아직도 수많은 자유와 인권들이 차가운 감방에 갇혀있어 우리 서로 갈 길 멀지만 이 겨울을 건디 어내는 생명들이 절망같은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도 희망으로 봄을 기다리듯,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당당히 나아가시는 회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울산에서 부끄러운 노동자 김병학 올림



이 땅의 평화와 민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회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새해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정부교도소 김철홍 드림
(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권오현 선생님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여러분께!

자주의 세기 첫해를 알리듯 올해 너무도 많은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전환점이 될 2002년을 맞아 가슴이 설렙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꿈쩍도 않고 양심수는 꿩이질 않지만 민중들의 가슴은 자주와 민주, 통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가슴의 불덩이를 더욱 키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바랍니다.

- 송태윤 올립니다

존경하는 권오현 의장님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첫 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애쓰다가 희생당하신 수많은 선배님들 덕분에 통일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가온 통일은 누구에 의해서도 꺾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7천만의 대단결된 힘이 있기에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신 의장님이시기에 자랑스럽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 전주교도소에서 이성우 올림

새해 새 아침 새 출발을 위하여...

Happy New Year!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님께.

김 재환님. 두영식 내이. 그리고 최영환.

한 해 동안의 동행으로 인하여, 양심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면, 정말로 같이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함께 살아가는 민가협 여러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양심수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모처럼의 정성, 성동하게 격려하곤 했습니다. 양심수 후원회가 저를 위해서, 기원합니다. 2001. 12. 17

출판 원에서 양심수 드림

귀로 된 생생함.

다시 한 해가 저를 감싸고 감동합니다!

식물은 새해 설화로 새 해를 향해 공화국 지점에 서있음

우린 여전히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리고, 사랑을 기다리고.....

늘 기다리는 삶이지만 그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수생님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설렘으로 새해를 맞이하려길 바랍니다...

대주대 심재준 올림.



과정

식물과 열매 사이에
꽃이 있다

꽃이 없다면

식물은 새해에 지나지 않는다

열매는

꽃을 피우면 식물이다

2001. 12. 24

조용한 주호의 의정

한해가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 속에서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건강에

목회하십시오

제가 원할 줄 알려드리며 할건데

자금은 마음뿐입니다.

의정님.

다시 희망을 품어줍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삶이네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안동에서 온것 문근

감옥에서도 지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동지들의 성원과 배려 때문입니다.

먼길 마다하지 않으셨던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잘되길 기원하겠습니다.

- 최진수 배상

민가협 가족들께

한 해 동안 보여주시 관심과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가협은 단순히 양심수들과 가족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의 정착, 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명실상부한 애국조직입니다. 400회의 목요집회와 열 세 번의 시와 노래의 밤은 그것을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새해에도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의 모범 따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 명랑청년 덕진 드림

보이지 않게 계속 도움만 받고 어제서야 이렇게 소식 전합니다.
 동지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꾸준한 활동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2002년에는 더 이상 억눌려서 옥살이하는 동지들이 없도록 함자제 투쟁합니다.

2001년 12월 19일
 대구교도소에서 민주총경주협의회 장격실장
 인 세 용.

또 한 해를 감옥이란 곳에서 보내고 또 돌아왔습니다.
 대구교도소 감옥에서 함께 해주시는 후원회에 인사를 드립니다.
 6.15 대통령선거의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대량도 식복을 목적으로 상아 기증을 부리며 무슨 조의사건이란 것도 주지
 않았던 것 같고 변형, 구호도 전혀 변이어져 본국에게 보내졌는데도 그정도 남아서 끝까지 희생당한 자리에
 있었던 희생성 모음이 가늠이 됩니다. 그런 또 같은 일들이 있어서 새로 더 큰 결의로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민족연결과 더불어 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01년 12월
 광주에서 황 헤 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민가협 가족 분들의 피와 땀으로 어린 정성에 뜨거운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새해
 에는 보다 많은 양심수가 석방되길 바라고 가족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박철성 드림

권오헌 회장님께.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지난 한 해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머리 숙여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자주 인사를 올려야 뉘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탓으로 그러지 못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으며, 회장님의 뜻에 어
 굿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저를 갈고 닦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회장님께 항상 광영과 승리가 깃드는 영광스런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에서 희망과 기쁨을 주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01. 12. 부산교도소 박 경순 올림

또 한 차례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가 끝났겠습니다.

언제쯤 그리 즐거운 주제로, 그렇듯 커다란 자리를 메우고 웃고 또 웃고 소리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아직은 더 바쳐야 한다고 손짓합니다.

더 바칠 것을 요구하는 조국에게 더 바칠 것이 남아있는 몸이고 마음이라 다행이
 라고. 곧 더 이상 한반도에 '양심수를 추억하는' 행사는 있을망정 '양심수를 위
 한' 행사는 없을 날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

No. 1

권오헌 선생님께.

권해의 글자꼴에서 저같은 인간들을 돌이켜 보고, 자기를 새해로
침착하게 준비하고 맞이하여야 할 사기입니다. 늘 바쁜 길을
돌고 돌면서 매시도 모를새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안락한것은? 날씨도 차가워지면서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라 이 원들없이 다니실것이라 생각되네요.
활동 활발하게 하시더라도 몸 취하게 움직이지는 마십시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운동도 부쩍 많이 하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술아보시 살면한 게 건강살이라고 좀 술까지 살면해 자선.
저는 어찌가 흡수할 순조로웠습니다. 잠적 3년에 자적정적 과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흡수살이 별 거는 갖고있지 않았구요.

그래도 활동 받으니 답답한 살입니다. 제가 활동 받은 것이
답답한 게 아니라 제근본의 변화지 않은 인식이 답답합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전민족의 연월로 남북의 두결살이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당국간 재화도 열정부분 전권이 되어진
상황에서 공동선언 전과 똑 같은 결과를 내라는 것이 실패한것입니다.

제 활동, 고등반학이 전격적인 여전히 복은 우적적 주적이고 혼동한
이적단체라고 합니다. 격동에서도 활동 정동에서도 6.15선언을 앞둔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의 국면의 결실을 여적까지 못하고 민족적 거대한
음적임을 무시하는 재전부살이 서 앞가니...

몇몇전 신문에서 북이, 6.15 공동선언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전개하고

No. 2

호소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6.15 공동선언은
북한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결살이 만나 합의한 식의 민족 공동의 통일 선언으로
전민족이 술없이 활동 술아라 할 민족들입니다. 그제시. 비록
남북관계에서의 정체가 잠시 앞다닥이라도 그 실권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북이 호소한 결연한 처치고 확한 거리는 북이 6.15 선언으로
당당히 나아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여아가 따로 없고
비록 노수족 견해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민족의 이익을 위해 제 뜻을
다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이와 같은 호소에 부응하지 못하는 편을 받았지만 결코 양해
받습니다. 잠시 정체된 했지만 6.15 선언이 더 폭넓고 거세게 활동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선행할게 4도 혼동하지리라 믿습니다.

권해가 저를이 가고 있는 길목에서야 소속전하게 되어 격한 마음입니다.
고정식결기도 했던 권해를 풀을 풀지마시고 민족주의 적면적 사해를
함께 끌어와서 지원합니다. 늘 건강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아울러 늘 걱정해 주시고 도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둘러, 지난 세월이 그렇게 주신것에는 못지 않았습니다.

2001. 12. 12.

대구에서 7편 서 한글편 의장이었던 손 공취이 도련다

길 기원합니다.

-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버린 해
항 선 올림

권오헌 선생님께.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각별한 배려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공안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면 혼자 남아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다지 조바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한 법에 대한, 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은 줄기차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의 침묵, 근신의 결과로 얻어진 합법적 신분. 상대적으로 자유스런 운신의 폭이 좁아져 버린 것에 대해서는 애석한 마음도 없는 바 아니지만 또 다시 원대복귀 한다고 생각하면 각오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제약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권선생께서 줄기차게 개척하시고 거두어오신 성과들에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항시 해왔습니다.

더불어 투쟁하는 것만이 보람이다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 4335. 1. 10. 임동규 올림

선생님들의 신념은 현실의 역사에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장기수선생님들에게

장기수라는 낯선 이름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에서, 이인모 선생님의 종군기자 수첩에서 그리고 술자리의 노래가사에서, 전설과 같던 선생님들의 삶의 족적을 흠모해 왔던 제가 이렇게 선생들에게 편지를 낭독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짧은 세월을 살아 왔고 부끄러운 운동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런 저를 채찍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삶의 지표인 선생님들이 걸어오신 삶의 족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6년 연대항쟁 때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장되고 있는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성을 잃은 김영삼의 야수와 같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청년 학생이 구속이 됐었습니다. 함께 해왔던 사랑하는 후배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바로 군 입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힘든 인생의 한 고비였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 운동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굴복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서 저는 선생님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신념의 세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먼 길을 바라보니 참 작은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자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살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이후 선생님들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한 평 남짓의 독방에서, 온기 하나 없는 콘크리트 벽을 사이에 두고 세상과 단절된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땀을 짜면 그 짧은 시간에 날파리들이 벽을 시커멓게 뒤덮어 소위 대포알로 변기 구멍을 막으면서 떡같은 밥에 마가린을 넣어 비벼먹어야 했던 시간들이, 항상 누군가에게 감시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막막해서 머리를 박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살아오신 신념의 세월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념의 세월을 뒤로한 채 거짓말처럼 선생님들이 북으로 송환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밥도 먹고 정다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실현 불가능할 것 같던 현실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살아오신 신념의 세월이 저 한 개인의 삶의 지표를 훌쩍 뛰어넘어 민족의 통일지표가 되는 그 날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아무리 두터운 회의와 절망의 현실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살아온 그 신념의 세월을 우리 모두가 구현한다면 그 벽을 훌쩍 뛰어 넘어 또 다시 거짓말처럼 조국의 통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신념은 현실의 역사에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날까지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1년 12월 15일

김 호 올림

● 이 글은 지난 12월 16일 2001 회원송년모임 에서 장기수선생님들께 올린 편지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민가협 어머님들께

406회 목요집회가 진행되었던 날은 며칠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져 몹시도 추웠습니다.

무척 손이 시렸고 옷가지를 비집고 들어오는 차가운 바
람에 몸이 자꾸만 움츠러들었습니다. 더디게 가는 시간이
알뜰고 따뜻한 나의 방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낭독되던 어머님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에 나 자신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혼자만의 자식의 석방이 아닌 이 땅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어
디든지 가시겠노라고, 아들이 가고자 했던 신념의 길을 이
제는 아들대신 당신이 가겠노라던 어머님의 눈물젖은 말
씀에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내년 이맘쯤 목요일 오후 2시에 보랏빛 손수건을 머리
에 두른 당신의 모습을 탑골공원앞에서 만나뵙지 않았으
면 하는 저의 바램이 너무 큰 욕심일까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도 여느 날처럼 거리가아닌 당신의 보금자리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
길 바라는 저의 마음이 무리한 것일까요?

언젠간 오겠지요. 차가운 감옥안에 계시는 자랑스런 그
분들이 우리의 곁으로 오실 그 날, 양심수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그 날.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머님들의 넉
넉한 마음, 따뜻한 미소, 자랑스런 뒷모습을 바라보며 힘
을 내어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영하의 날씨속에 목요집회
가 진행되었지요.

앞으로는 양말을 두 켤레씩 꺼신어야겠다는 어느 장기
수 선생님의 말씀, 어린 학생들의 울동에 함께 몸을 흔들
며 추위를 이겨내시던 어머님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씩씩
하게 부지런히 어머님의 뒤 쫓아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2001년 12월 16일
고광희 올림.

● 이 글은 지난 12월 16일 '2001 회원총년모임'에서 민가협 어머님들
께 올린 편지글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지키는 일

양심수님들에게.

어김없이 겨울이 오면 날씨가 추워지고 추운 겨울은 없
는 사람이더욱 춥게 느껴진다는 계절입니다.

수많은 편지를 써보지만 양심수 분들에게 쓰는 편지는
이전의 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보낸 쌓이고 쌓여진
세월, 단지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처절히 싸우고 또 싸웠을 시간. 그 시간동안 양심수들을
지켜주고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일까?

저는 한 일도 없이 직장생활이 10년이 되었고 이것 저것
하다가 지금은 두부, 유부를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를 팔면서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두부의 90%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10%정도의 단백질은 먹는 것이지요. 콩을 그냥 먹
으면 더 좋은 단백질과 영양분을 얻을 수 있지만 소화가
잘 안된다는 콩의 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두부로 바꾸어 먹습니다.

두부를 두부답게 만드는 것은 10%의 콩 단백질이 옹고
되어 성형된 것입니다.

사람도 인생의 90%는 물처럼 큰 의미가 없고 10%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양
심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고 강요당할 수 없는, 마
지막까지 파괴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양심의 자유가 아닌
가 합니다. 그것을 파괴하려는 모든 논리와 집단에 온몸으
로 대항하여 살아오신 양심수 분들의 소중한 삶이 나태하
고 게으른 저의 삶을 일깨워줍니다.

임오년 새해에 선생님들에게 인사차 편지를 쓰는데 말
처럼 생각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건강해지세요.

2002년 1월 14일
모지희 올림

● 모지희님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이며, 기행소모임인 '몸시롱 감
시롱' 총무를 맡고 있는 주부님입니다.

“그저 아쉬움만 남는다는 선생님의 지난 삶은 다만 존엄하기만 한 것을…”

오영순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덜컹거리는 승강기를 탈 때마다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다. 한평생 통일 일꾼으로 살아오신 선생님께서 이런 고층 영세민 아파트에서 사셔야되는 것이 늘 죄스럽기에 찾아뵈 때마다 언제나 불안정한 승강기가 항상 마음에 걸린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시키고자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나의 친구 신유준님과 함께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다른 날에 비해 매서운 바람이 기승을 부린 날이었지만, 선생님께서는 일부러 다과상을 마련하러 시장을 다녀오신 듯하다. 그러면서도 다른 불일 결들여 검사검사 다녀오셨다고만 말씀하신다.

김선분 선생님은 1925년 2월 14일, 경기도 양주 퇴계원에 있는 가구수도 얼마 되지 않는 아늑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삼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난 선생님 위로는 오빠 두 분이 계셨고, 선생님께서 세 살되던 해에 아버님께서 운명하셨기에, 열세살이었던 어린 큰오빠는 아버님 노릇을 하셨다고 한다.

어렸을 때 회상은 더듬어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컸다는 선생님은 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야 당신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실감하셨다고 한다. 옆집 또래 친구 순분이는 부자라서 학교엘 들어갔는데,



선생님은 가난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셨단다. 또래 친구인 순분이가 공부하는 옆에서 어깨 너머로 글자를 터득한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에게 무조건 매달렸단다. 막무가내로 학교 보내달라고 때를 쓰는 막내딸의 애원을 뿌리치

지 못한 어머니께서는 결국 학교를 보내주셨다 한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결국 4학년 이상을 다닐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잘했던 것 같다 하신다. 학교에서 어머님께 '이 아이는 영특해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촉구하여, 결국 학교측의 배려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스무살이 되도록 세상에 눈을 뜨지 못하고, 하루하루 드리워진 굴레대로 사는 걸 당연지사로 여기며 생활하셨다는 선생님은 그 시절 일본인들이 주는 씨레기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으로 여기셨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본인들을 침략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거니와 1945년 해방이 되고 미국이 일본을 대신해 이 땅에 군림한 뒤에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다고 한다.

이즈음 하늘이 도운 것인지 선생님을 일깨워 준 고마운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때는 이승만이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세우려 하면서 남한의 정치 지형이 급속하게 좌익, 우익으로 정렬되던 시기였다 한다. 확신은 없었지만 그저 3.1운동 기념식 같은 집회현장 같은 곳을 드나들며 선생님은 처음에는 아주 즉자적인 느낌으로 미국을 반대했을 뿐, 제국주의의 속성을 깨우친 것은 그 후로도 한참 지나서였다 하신다.

점차 의식을 깨치게 된 선생님은 서울시 중구 필동 여맹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교환 수단이 전혀 없던 때라 무조건 움직이는 것만이 생명이였다고 한다. 밤새 등사기로 전단지를 만들고, 그 전단지를 보따리에 싸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몰래 투입하는 일을 수 없이 반복하면서 1948년 남한 단독선거를 앞두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싸우셨다고 선생님은 회고하신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그 해 9월, 중구 여맹지도위원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군이 개입하여 전세가 역전되는 바람에 북쪽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평안도 강계까지 두 달 가량 산을 타고 계속 올라가던 때 선생님은 육체적인 고달픔보다 더 참기 힘든 건 사랑하는 내 조국 강토가 폭격으로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뵈 놓고 지켜보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선생님은 절절함에 가슴을 쓸어 내리시느라 말씀을 끝내 맺지 못하신다.

그 후 선생님은 조직의 추천으로 의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쟁통에 학교가 얼마나 잘 운영되었겠냐고 모두들 의문을 품겠지만, 세상에 그런 학교는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 하신다. 자원이 부족할텐데도 전기가 계속 들어와 방안은 언제나 따뜻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건강 해치니 조심하라며 다독여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낮에는 수업 끝나고 한 시간씩 취침하는 시간도 있었으니 정말 인간을 사랑하

는 사회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때의 행복감을 만면에 떠올리신다. 50년전에도 그 곳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으니, 이제야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이곳보단 교육면에서는 앞서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 때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내 생애에 다시없을 행복한 시절이었노라 하신 선생님은 그 학교에 다니면서 미제국주의의 속성과 사회과학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새로운 자각을 더 많이 한 듯하다.

학교 교육과정이 끝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강대국에 의해 국토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평화적인 통일이 달성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신념 아래 결국 선생님은 남으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던 그 해 52년 봄, 그 무엇도 실천하지 못한 채 간첩죄로 잡혀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10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을 시작하신 선생님은 처음에 미결수로 수용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생활을 잊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곳은 그야말로 인간이 아니었지. 처음엔 굶어 죽는 줄 알았으니까. 하루에 몇 사람씩 굶어 죽어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고문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 결국 선생님은 말씀을 끝맺지 못하신다.

출소 후 오빠 집에 얹혀 살게 되신 선생님은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빈곤한 집안에 양식만 축낸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 남산에 올라가 거적을 덮어쓰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어떻게 수소문했는지 언니 박정숙 선생님께서 찾아 오셨다고 한다. 언니인 박정숙 선생님 또한 같은 처지에 있었다. 그 분들이 돈버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요, 출소 후 어딜 가나 무서운 사람들이니 조심하라며 소문을 퍼뜨리고 감시하는 형사들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건 보통 서민들보다 몇 갑절 더 힘들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두 분께서 의기투합

하여 동고동락 하면서 그 어려웠던 수십 년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두 분은 굳건히 살고 계신다.

1990년초 범민련이 결성될 때, 처음엔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이 당신께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95년 2월 범민련이 정식으로 결성되면서 중앙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그 해 11월 범민련에 대한 정권의 무차별 탄압에 맞서 농성을 벌이면서 선생님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고 한다. 참고로 선생님은, 범민련은 통일방안 3대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원칙 속에 동등하게 함께 가자는 차원이지, 중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난 호에 범민련이 중립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아달라고 하신다. 그리고 범민련이 건재해야 됨의 필요성을 옆에 계신 박정숙 선생님도 같이 성토했었다.

6·15남북공동선언 때 남측 대표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 기대감에 부풀어 밤잠을 설치고 있던 선생님은 당일 새벽에 갈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범민련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한껏 부풀었던 마음의 상실감보다는, 안될 거라고 예상하고 일찌감치 포기했더라면 대신 한 사람이라도 더 올라가 가슴 뜨거움을 안고 올 수 있었을 텐데 그 좋은 기회를 빼앗은 것만 같아 그저 안타깝고 속상하기만 했다 한다.

선생님 일생에서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냐고 여쭙자 선생님께서는 7.4 남북 공동 선언이 나왔을 때와 6.15 남북 공동 선언 때였다고 한다. 그 때는 정말 너무 기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우직하고 미련해서 좌절 같은 건 모르고 살았다는 선생님! 당신은 고달픔 속에서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멈추지 말아야겠다, 좀더 일꾼답게 일을 못한 것이 그저 후회될 뿐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땅의 젊은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부탁드렸다.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키워야 돼. 그러기 위

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하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진정한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하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세대 차에서 느끼는 거부감일지 몰라도 진지함이 엿보이지 않은 것 같아. 자기 나라의 전통을 지켜내려면 언어와 문화가 똑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말의 절반은 외래어인 것 같아.” 선생님은 5천년 역사의 전통을 살려나가면서 다른 민족과의 평등한 관계를 모색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신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생각없이 사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은 결코 우리에게 책임 또한 묵과할 수 없는 거야. 분단된 조국을 물려준 죄! 그 죄처럼 크게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 때야 뭐가 뭔지 몰라서 당했다지만, 왜곡된 역사가 파헤쳐져서 지금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대물림을 우리네처럼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만 하고 사는 것에 치중한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뿐이야.”

며칠 전 언니인 박정숙 선생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선생님 혼자 모임에 다녀온 일이 있다 한다. 그럴 때면 웬지 모를 허전함을 달랠 길 없다고 하신다. 이제 두 분은 비록 몸은 두 사람이되 우리에게는 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우리들 곁에 두 분 선생님은 한 몸으로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 덧없는 존엄함으로 빛날 것이다.

범민련 송년회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 선생님들 때문에 그 날도 시간에 쫓기어 부랴부랴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만 했다. 인사를 드리고 뒤돌아서 나오며, 바람이 차가우니 들어가시라고 몇 번을 여쭙어도 모퉁이로 사라지는 우리 모습이 끝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내다보고 계신 선생님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모든 장기수 선생님! 임오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소원합니다. ❀

“내일은 박경순 동지 면회 갑니다.”

유영순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2001년 마지막 목요일 집회가 있던 12월 27일. 이 날도 어김없이 어머님들은 보라색 수건을 두르고 탑골 공원에 모이셨고, 이 자리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한 분이 권오현 선생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로에서 집회해서 서대문, 청량리까지 사람들이 들어서면 국보법은 철폐되죠”

6·15 선언 후 국보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역량부족으로 놓치고 그대로 또 한 해를 넘기려 하고 있는 때에, 청년같은 기상으로 전국민이 떨쳐 일어나 국보법이 철폐되는 날을 말쑥하고 있는 분은 문재룡(64세) 선생님이셨다. 8·15 방북단의 일원으로 평양통일행사 참여 후 귀국하자마자 구속되어 폐암 말기로 밝혀져 지난 10월 18일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하신 선생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활동하고 계셨다.

“건강? 이렇게 좋아요. 암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어제는 사우나 가서 땀을 쫓 빼고 왔는데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폐암이 너무 많이 전이되어 수술조차 할 수 없고, 간까지 침범하여 의사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선생님은 밝은 표정이었고 당신의 건강이 스스로 좋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

선생님은 1938년 전남 장흥에서 3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가난한 농부의 집, 근근히 생활하던 초등학교 시절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아버지는 소년 문재룡이 14살 되던 해에 돌아가시고 소년은 어머니를 도와 본격적



으로 집안 일을 거들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하던 때에 조미전쟁이 일어났어요. 조미전쟁 알아요? 남들은 6·25라 하죠. 그 때 처음 인민군을 구경했지요. 그들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이란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동네에 친일파부자가 있었는데 그 때 그 사람이 처형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만 처형시키고 재산은 기왓장 하나도 건들지 않더라고요.”

사상적으로 미약한 농민들을 사이에 두고 낮에는 경찰 세상, 밤에는 빨치산 세상으로 변하던 시간이 흐른 후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의 천석꾼, 만석꾼의 자제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어 집안 전체가 몰락하고 있었다. 평생 근심걱정 없이 호의호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공산주의자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문재룡 인생에서 첫 번째 수수께끼가 되었다.

1964년 군 제대 후 결혼할 나이가 되자, 청년 문재룡은 공부 많이 한 여성을 원했다. 당신 자신이 공부를 많이 못했기에 안사람만은 공부를 많이 한 여성이기를 원했다.

“옛날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를 많이 한 여성 중에 결혼 할 나이가 될 즈음에 집안이 몰락하여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여성과 결혼하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낀 장남이니까 엄마 뜻대로 결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색시와 선보고 결혼했지요. 그 사람이 지금 집사람이죠.”

평생 고생만 시켰다며 안타까워하는 위인린(61세) 여사는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35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하셨다.

두 번째 수수께끼.

67년 결혼 후 더 이상 농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68년에 상경하여 택시 운전을 하며 지금의 노조적인 택시협의회에서 활동하였다. 운전하여 돈 벌면 운동하려는 사람들과 모임 갖고, 후에 자리를 옮겨 버스 운전도 하며 서울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생활하던 71년,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었고 김대중 연설을 들은 후 문재룡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연설 중 조국통일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연방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문재룡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구나하는 생각에 자세히 알고 싶어 그 때부터 지식인을 찾아다니며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연방제는 문재룡 인생에 꼭 풀어야 하는 두 번째 수수께끼로 다가왔다.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조국통일이라든가 연방제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그러던 중 한 분을 만났어요. 내 인생의 사상적 스승이시죠. 함경도 어름이 고향이신 분인데 서울에서 대학 공부를 하던 중 분단이 되어 단신으로 남쪽 생활을 하신 분이예요. 그 분을 통해 그 동안 궁금해하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80년대가 시작하면서 민주협을 거쳐 신한민주당도 봉을 지구당(국회의원 조순형)의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살벌한 전두환 시절 야당의 지구당 부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치판에 뛰어들어 사람들과 만나면서 조국통일이라든가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 현재 시급한 과제라든가 미국과의 문제 등 너저분한 정치판에서 진정한 정치를 말하니 사람들은 낯선 이야기에 오히려 문재룡을 납파된 고정 간첩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실제 85년에는 고정간첩 혐의로 중앙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그렇게 80년대는 야당 정치 일꾼으로 정당 활동하면서 집회 현장에서 최루탄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러던 중 결핵

을 앓기도 하였다.

64살의 통일 선봉대장

“내가 원래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는 조국통일 문제였지 정당 활동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당 활동하면 서도 범민족대회 등 통일 행사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통일운동 단체를 찾아보니 민자통을 알게 되었고 1993년에 민자통에 가입을 했지요.”

민자통에 가입한 후 94년에 범민족대회 서울추진본부가 결성될 당시 민자통에서 파견한 일꾼으로 활동하고, 98년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결성 당시 서울추진본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 해 9차 범민족대회 후 범민련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11월 보석으로 출소하였고, 99년 10차 범민족대회 서울지역 집행위원장으로 활동 후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명동성당에서 4개월에 걸쳐 농성에 돌입하였다. 99년 12월 17일 재판 출석을 위해 나가다 구속되었고 1년 6월 옥고를 치른 후 2001년 5월 4일 출소하였다. 90년대는 범민련과 함께 구속과 출옥의 반복이었다.

지난 5월 출소 후에도 계속 집회와 모임을 진행하였고, 그러던 7월 초 너무도 피곤하여 병원에 갔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며칠 쉬면 낫겠지 하는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이미 몸에는 신호가 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7월 하순 닷새 정도 집에서 쉬 후 7월 30일부터 8월 초까지 예순넷의 연세로 3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이끌고 목포에서 서해안을 따라 행진하는 통일선봉대 대장으로 활동을 하셨다. 연세대에서 통일선봉대 보고식을 갖고 다음날 방북하기로 예정되었으나 당국에서는 14일 밤까지도 선생님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고 있었다.

“14일 밤까지 4명이 방북 불허 상태였는데 이종린의장,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푸른 영상, 그리고 나였거든요. 나는 자격정지 기간 중이라 복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에 못가면 책임지라고 했죠. 하여튼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신사복, 와이셔츠, 넥타이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출발 몇 시간 전에 한충목 집

행위원장이 와서 ‘가게 됐습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갔다온거죠.”

방북단의 활동을 놓고 남쪽 언론이 온갖 요사를 떨고 좇대 없는 정부는 8월 21일 김포공항에서 방북단 중 16명을 긴급 체포한다. 이중 범민련 어르신 6명과 강정구 교수 등 7명이 구속되었다.

“통일 말구 뭐가 있겠어?”

10월 15일 새벽 감기로 인해 기침을 하니 각혈을 심하게 하였다. 담당에게 보여준 후 의사 검진을 받고 사진 찍고 3일이나 기다리니 결국 폐암 말기였다. 8월 21일 구속된 후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매일같이 의사가 와서 건강 검진하고 검찰 조사 30일 동안에도 건강 검진 받았는데 결국 각혈을 하니까 제대로 된 검진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받은 건강검진은 모두 엉터리란 말인가. 근 50일 동안 수도 없이 X-ray 찍었는데 각혈을 하니까 그제서 폐암 말기란다. 너무 많이 전이되어 수술도 할 수 없는 폐암 말기란다. 아직 선고도 되지 않은 재소자들의 인권과 건강 검진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10월 18일 구속집행정지로 나오면서 소위 민혁명 사인으로 구속된 임태열씨와 인사를 나누었다.

“식구통 사이로 악수를 하는데 임태열 동지가 선생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울더군. 98년 구속되었을 때 김양무 동지가 암으로 출소하였는데 그 때 생각이 나더군. 김양무 동지 내보낸 후 내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거든”

출소를 하고 보니 이미 범민련에서 안양병원 필름을 복사해 놓고 일산 암센터 입원을 결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19, 20일 일산 암센터에 입원하고 조직 검사를 받으니 간까지 전이되었고 간은 조직 검사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2주 주사 후 1주 쉬고 2주 주사 맞는 투약이 결정되었다. 4번 주사 후 검진을 해보니 악화는 안되고 현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좋아질 것을 기대했는데 좋아지지 않았기에 약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3주에 한번 주사 맞고 매일 방사선 치

료를 받는게 어떠한지 제안을 의사가 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폐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간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폐와 간이 모두 좋아지는 쪽으로 투약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결국 3주에 한 번 주사 맞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는데 주사 후 3일간은 너무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 고통이 심할 거라 의사는 말했다.

“3일간 무지 힘들거라고 의사는 말하더군요. 그런데 전에 후배가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땀을 많이 흘려서 몸에 독소를 빼내야한다고 했거든요. 또 어성초라는 약을 발효시킨 것을 먹으면 독소를 뽑아내는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사를 맞은 후 황토방에서 땀을 쏟으니 오히려 가뻐해지더라구요. 어성초도 꾸준히 먹구 있어요.”

선생님은 암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는지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다. 출소 후 모든 집회와 모임에 참석하고 전국에 있는 양심수들을 차례차례 면회다니고 계신다.

“소원? 하하 통일이죠. 통일말구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운동하는 동지들이 전선의 깃발아래 모여야 해요. 하나가 되어야 하죠. 흩어지면 안되죠.”

80년대, 90년대 이름깨나 날리던 사람들,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가. 결국 자신의 안일을 위한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많은 이들이 운동의 이름을 팔아먹고 떠난 자리를 예순넛의 할아버지가 통일선봉대 대장으로 서해안을 달리셨고, 국보법 철폐 기싸움에서 밀리니까 당국이 허락한 방북에 국보법의 족쇄가 채워지지 않는가.

“내일은 부산 박경순 동지 면회 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굳센 의지를 보이며 환한 웃음으로 떠나는 문제물 선생님의 어깨 위로 도시의 혼탁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너무 좋아서’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는 요즈음 회원교육
강좌라는 것이 열리고 있다.
예전에는 장기수선생님들
을 만나 뵈는 것이 회원 현
장교육 그 자체였는데, 북녘
으로 비전향장기수선생님
들 63분이 가신 이후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회원교육
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회원교육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임이 바로
‘시사모임’이다. 시사모임은 원래 작년 봄부터 시사문
제 등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산행
에서, 또는 시사강좌를 열어서 회원들과 함께 시사 현안
에 대해 공유를 하는 장을 준비하는 소모임이다. 하지
만, 이들은 작년 한 해를 보내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회
원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회원교육강좌’를 마련
하여 그 첫 장으로 올해부터 매달 첫 주 일요일마다 민
가협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이자 덕성여대 사학과 교
수인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교실을 연 것이다.

이 역사교실에 대한 반응이 대단하다. 첫 자리에 30
여명이 넘게 모인 것이다. 후문에 의하면 50여명이 넘
는 강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을 진행하는 시사모임에 함께 하는 회원이 있
다. 바로 한수정 회원이다.

“하고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못 읽어서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매우 솔직한 활동 동기이다. 자신의 맡은 역할을 ‘뒤



가리’라고 하며 시키는 대
로 한다는 한수정 회원은
교육강좌 내용을 정리하고
소위 만들고 붙이고 하는,
여자가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솔선해서
다 한다.

“일단 양심수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서 하
는 것이 다 좋아요. 주변에
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
체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무조건 배운다며 “창학 오빠가 잘 해줘요. 잘 챙겨주
고, 화도 안내고...”라며 힘든 일을 척척 해내고 있는 것
이다. 모임에 대한 그녀의 바램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란단다.

이 재밌는 회원이 양심수후원회에 활동하게 된 까닭
은 무엇일까 궁금했다.

“선배의 권유로 하게 되었어요. 2000년 11월 셋째주
일요일에 산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너무
좋아서 가입했어요.”

활동한 지 1년이 넘었다. 자신이 하는 일과 후원회 일
등 바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작년 학교 다니면서 솔직히 부담이 됐어요. 아르바
이트도 하고, 대학원 시험준비도 있었고... 그런데, 명
동성당 정치수배자들도 도와주어야 했고... 하지만, 돌
이켜보면 오히려 힘이 됐어요. 마음도 편했고, 좋은 사
람들도 만났고...”

그녀는 자신이 느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라는 조직

은 '사람들의 정을 중심으로 정세변화에 관계없이 쉽게 놓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부터 챙겨 가는 것이 보기 좋은 모임' 이라서 편하다고 한다.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분위기를 좋아해서인지, 바쁜 생활에도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것 같다.

한수정 회원은 1994년 단국대 식품영양학과를 입학하여 3학년때 이과대 부회장을 하였다.

"1학년때 과학년대표여서 학생회 선배간부들을 자주 만났는데, 사람들이 좋아서 함께 학생회 활동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당시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학생회 활동을 했다. 그리고, 1998년 2월에 졸업했다. 갓 사회에 나와서 속 편한 생각에서인지 "전공도 살리고 시간이 많이 나는 직업을 가져서 남는 시간에 진보적인 활동을 해보려고" 급식교사가 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그 때, 공무원시험학원 국사강사로 이름을 날리던 박인석 회원을 만났다고 한다. 국사 학생으로 수업때 민족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역사를 가르치는 박인석 선생님께 남모르는 존경심을 가졌다고 한다. 결국, 한수정 회원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활동을 통해 존경하는 선생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한수정 회원의 운명은 결국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올 예정이었나 보다.) 8개월간 준비하다가 그 시험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한 회사에 인턴 영양사로 들어갔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두었다.

그리고, 웬지 '수학이 좋아서' 편입을 준비하였다. 아르바이트로 학원강사도 하고, 과외도 하게 되었다. 1년이 지나서 고대 수학과에 자신의 표현대로 '가까스로' 편입되었다. 이제는 '수학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마찬가지로 가까스로 고대 수학교육과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지금 한수정 회원은 학비를 벌려고 과외나 학원 강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많이 두렵기도 한데, 이제는 직업이란 보람되고 열정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생활보다는 아이들을 가르

친다는 것은 하고싶기도 하고, 보람도 될 듯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이다.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살자!" 라는 좌우명을 지닌 한수정 회원은 실제 학교 다닐 때, 부족함이 있어도 항상 공부도, 학생회 활동도 성실히 하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솔직히 학생회 활동은 결과적으로 잘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다 잘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기 좋아요." 라고 이야기 하는 그녀의 꿈은 진솔해 보이고, 희망이 있어 보인다.

한수정 회원을 취재한 시간은 밤 10시였다. 고 신인영 선생님의 빈소를 다녀와서 서울역의 한 식당에서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막차를 타는 종로5가 버스정류장에까지 내려다주었다. 비록 소식이 취재기한은 매우 늦었지만, 넉넉한 인간애를 지닌 비전향장기수 신인영 선생님을 추모하며 '참된 사람'을 생각하고, 더욱 참사람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회원과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녀의 말대로 '보람된 일' 이었다.

문득, 귀가하는 한수정 회원을 보며 양심수들에게 썼던, 통일연대에서 만든 연하장의 문구가 생각났다. 항상 사람을 대하며 "입가에 절로 번지는 미소"를 잊지 않는 그녀에게 새해, 그리고, 그 후에도 항상 행복이 함께 하리라고 믿는다. ✨

1

월 산행

새해 좋은 사람들과 '기쁨과 희망'을 만들며 산에 오르고자 합니다.



일 시: 1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장 소: 북한산 북악파크 호텔앞

준비물: 회비 3000원 도사락 등

차 편: 8번, 522번 버스

가슴 설레던 새해 첫 날 아침의 태양은

고광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수습간사

야간산행을 하기로
했던 분들이 2001
년 마지막 날 재영형 집
에 모였습니다.

현익선배님, 득행선
배님, 정태선배님, 상희
선배님, 호선배님, 계속
언니, 그리고 저.

비록 산행에 함께 하
진 않았지만 응원차 방
문해주신 의숙언니, 또
따뜻한 집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신 재영선배님.

우린 술잔을 주고받기도 하고 나란히 앉아(?) 누워(?)
역시 주인공은 총을 맞아도 금방 쓰러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시켜주는 재미난 영화감상도 했습니
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새벽 3시경 옷을 든든하게 무
장한 채 우린 집을 나섰습니다.

우이동 그린파크 근처로 M.T를 왔던 혜정이와 학
교 후배 6명과 합류하기로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무지막지하게, 하지만 기분은 참 좋았던
평평 내리던 눈도 그쳐 우리의 산행을 도와주었습니다.
산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한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했던 함박눈이 그치고 산에 오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4시경에 드디어 우리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었습
니다. 모두들 아이젠을 신발에 부착했기 때문에 눈길을
오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2001년 마지막날 일기예보에서 '새해 첫날 산에 오



르셔도 해를 보시긴 힘
들겁니다' 라고 거짓말
을 해준 덕택으로 우린
한적한 산길을 오붓하
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르던 중 누군가 노래
를 시작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따라 부르고 앞사
람에게 눈세례를 퍼붓
고는 어린아이마냥 깔
깔대며 한없이 즐거워

했습니다. 시간가는 줄, 힘든 줄 모르고 올랐는데 어느
새 백운산장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당연하다는 듯이 버너며 코펠
을 들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보글보글 맛있는 라면과 함
께 잔~ 등장하셨던 멋진 선배님들! 감동이었습니다.
또, 후배들을 상냥하게 챙기던 혜정이의 모습또한 예뻐
구요. 여럿이 함께 먹으니 더욱 즐겁고 맛있었던 선배들
의 애정이 가득 담긴 라면을 모두 헤치우고 간식시간을
정리한 후 우리가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한 시간은 7시
였습니다.

비록 미끄러운 눈길이, 올라갈수록 가파라지는 산길
이 온 신경을 곤두서게 했지만 가끔씩 고개를 들어 쳐다
본 밤의 눈 덮인 산의 모습, 은은한 달빛에 반짝이는 하
얇게 쌓인 눈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난생 처음 눈 덮
인 산을 그것도 이른 새벽에 오르긴 처음이었는데 아무
래도 첫 경험이라 그런지 가슴이 무척 설레고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하고 좋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다시 산을 오른다해도 오늘 느꼈던
감동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가파른,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통제를 했던, 지금 생각해도 까마득하고 끔찍한 그 무섭던 바위 산을 올라 드디어 정상에 섰습니다.

하지만 7시 40여분이 되어도 해는 전혀 떠오를 기미가 없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뭘지 모를 다른 느낌과 의미를 주는 새해 첫 날 해를 기다리며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아름다운,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의 느낌을 지금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가슴 설레이던 새해 첫 날 아침의 태양은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속으로 새해 소망도 그 떠오르는 태양에 빌어보았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가 스물하고도 여덟입니다. 휴우~ 이제 제발 철들게 하소서.’

‘창회형 속썩이지 않고 올 한 해 후원회 일 잘할 수 있도록 힘뿐 아니라 지혜도 주시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행복하게 항상 웃게 하소서.’

‘몇년 쯤 수배생활로 고생하는 ○○형, 어서 빨리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으면..’

‘가진 자가 더 많이 베풀고 욕심부리지 않고, 없는 자의 것 빼앗지도 업신여기지도 않는 세상이 빨리 오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되돌려 받고 항상 행복하길..’

우린 사진을 찍는다면 역광이니 뭐니 신경도 쓰지 않고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삼아 여러컷의 우리가 이곳에 왔노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부산을 떨었습니다. 마치 사진 한번 못 찍어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참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내내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몸은 피곤했던게 사실이지만 새해 첫 날을 좋은 사람들과 특별하게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침 10시경 산을 내려와 우린 떡국재료를 사들고 권오현 선생님댁에 새해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선생님께 세배도 드리고 따끈따끈 두부김치를 안주삼아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계속언니의 맛있는 떡국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금 쉬다가 개인적인 일로 먼저 가셨던 득행선배님과 계속언니, 상희선배님과 혜정이를 제외한 현익선배님, 정태선배님, 호선배와 저는 권오현 선생님과 함께 조만조어머님, 박용길장로님, 박정숙·김선분선생님 댁에 새해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박정숙·김선분 선생님 댁에서는 인석선배님과 오영순언니, 승미언니, 갈현동후원회의 정철이와 한찬욱 선배님도 만났습니다.

4시 30분 무렵 박정숙·김선분 선생님 댁에서 나와 권오현 선생님께선 또 다른 곳에 인사를 가야 하신다며 발걸음을 옮기셨고 우리 역시 각자의 일정속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몸은 무척 피곤한 새해 첫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가득 뿌듯함과 따듯함, 행복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12월 31일, 2002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새해 첫 날 아침의 태양에 약속했던 다짐과 바램들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나이고 싶습니다. 

2월

회원교육강좌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교실’

2강이 열립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일시: 2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낙성대 만남의 집

차편: 지하철 2호선(낙성대역 8번출구)

아니 이럴수가 !

송창학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 회원

아니 이럴수가 ! 강좌 시간전에 모인 회원이 10여명이 넘어서다니.

서로 신기해하는 분위기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 만큼 회원들이 역사강좌에 임하는 자세들이 진지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오전 10시 30분.

장기수선생님들을 포함 35명의 회원들이 따뜻한 보리차 한잔씩을 하며

자리를 잡았고, 2002년 후원회 주최 첫 공식행사인 역사강좌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다들 아쉬웠지만 낙성대 만남의집 마루 바닥은 난방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재질이 돌이라

바닥에 이불을 많이 깔았지만 양말 끝부터 한기가 전해오는 춥고 불편한 자세로 강의를 들었다.

그러나 100여년 전 내·외부 모순을 극복하고 민족자주 국가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올바른 역사관의 부재로 서구열강의 세력 각축장으로 전락 시킴으로 구한말의 역사가 지금까지 한반도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강의내용은 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진지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였다.

12시 정도에 강의를 마치고 1시까지 강의내용과 관련된 비디오를 본 후 질의응답이 있었다. 처음엔 분위기를 살피며(노혁 회원은 너무 분위기를 의식한 앞선 생각 때문에 질문을 못했다고 끝난 뒤 무척 아쉬워 했다) 머뭇거리던 질문들이 점차 열기를 띠었고 사회자가 끝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웠지만, 논점들을 잘 정리해 훗날을 기약하기로 하였다.



1시부터는 전날부터 준비한 사골국물에 떡국을 끓이고, 김치 부침개까지 부쳐 모두 너무나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일사불란한 식사준비로 깔끔하고 빠르게 진행된 점심식사 후(수고하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강의전반에 걸친 진행평가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보다 많은 회원들과의 만남을 위해 시간이 오후 2시로 변경되었고, 강의실조정 문제와 조별 편성 등에 대한 안전들이 나왔다. 또한 한교수님의 당부 사항인 강의시간엄수와 시사탐의 역사강좌 3대 원칙(궁금하신분은 다음 강좌때 오시면 알려드립니다)이 발표되었고 앞으로 1년간 진행될 강의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끝으로 이날 모든 일정이 끝났다. 그리고 나서는 후원회의 전통이 되어가는 아주 화끈한(?) 뒷풀이가 근처 호프집에서 시작되었다. 

어머님 댜시지 못한 채 어찌 눈을 감으셨습니까!

또 다시 북녘으로부터 슬픈 소식
이 전해져 왔습니다.

극진한 보살핌속에 행복하게 잘 살
면서 어머님 댜시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시던 신인영 선생님께서
1월 7일 운명하셨다는 믿지 못할 소
식을 들었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최
상의 조건’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인지 지난 해 8월 대축전때 그렇게도
건강해 보이시더니. 사무치게 그리워 하시던 어머님을
끝내 댜시지 못한 채 오랜 옥고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
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한 소식이었습니다. 조국사랑
을 위한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쳤듯이 분명 끝수암이란 불치의 병마에
서도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었었는데, 평생의 염원 자
주통일 그 날을 보시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병환을 염려했었고 그래
서 민가협을 비롯한 나라안팎의 석방촉구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마침내 감옥을 나오시어 북녘으로의 송환까
지 이루어졌는데 그 감격과 영광의 날이 1년 반도 못되
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26년 12. 6일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
은리에서 8남매의 맏아드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
버님께서는 갑오농민전쟁에 참여하셨고 아버님도 독립
운동을 하셨으며 외조부께서도 항일운동을 하신 반일
애국자의 집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집안 어른들의 영향
을 받으시어 선생님께서도 일찍부터 항일의식이 남달
랐으며 학교를 옮겨다니 사례만 보아도 선생님의 치열
했던 학창시절의 역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43년 청주상업학교 입학-46년 학
원민주화운동과 관련 퇴학-전북중학교
3학년 편입-미·소 공동위촉구시위와
관련 퇴학-47년 서울에 와서 도서관에
다니며 신문배달 등 고학-48년 서울상
대 입학-변산야산대 합류-군산상업학
교 편입-1949년 6월 변산 72블럭유격대
로입산- 유격대 활동-체포-50년-석방
등 파란많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6·25전쟁때 집안 어른들이 후퇴하는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학살당했으나 선생님은 아버님과 함께 장질
부사를 앓고 있었던 덕에 참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유
격활동을 하던 선생님은 의용군에 입대 9월 인민군과
함께 북쪽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전쟁 시기였음에도
1952년 대학다녔던 남쪽출신 병사들은 소환되어 53년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 1957년 졸업을
하고 1967년까지 10여년 농업성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북녘에 계시는 동안 결혼도 하셨고 따님(은희·돌아가셨
음), 아드님(남철), 따님(영희)을 두셨습니다. 1967년 3
월 9일 남녘에 내려와 부모님을 찾아 뵙고 돌아가던 길
에 붙잡혀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무기형 최종선고
를 받으셨으며 1998. 3. 13일 석방될 때까지 사상전향공
작의 모진 고문등에서도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오셨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발족과 함께 양심수로 규정, 본격적인 석방운동과 후원
활동이 있었고 특히 1997년 11월 대전성모병원에서 원
형질 세포암(골수암)이란 검진이 나오자 민가협을 비롯
한 나라안팎의 인권단체들이 석방운동을 줄기차게 벌
여 90살 노인으로 아드님 석방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
님(고봉희)곁에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서 가족이 있는 북녘으로의 송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과 선생님의 정당한 주장, 양심수후원회,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와 많은 나라안팎의 송환요구로 마침내 2000년 9.2일 가족이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북녘으로 가실 것을 요구했던 93살 노모님은 끝내 남쪽에 남아서 학수고대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친 기다림을 잊은 듯 선생님은 홀연히 혼자 가셨습니다.

2000년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경축행사때 평양에서 선생님들 가신지 40여일 만에, 그리고 지난 해 민족통일 대축전때 그 인자하신 모습 다시 뵈을 수 있었을때 가족들 만나시어 행복하게 계시면서 건강을 자랑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웃음이 지워지지 않는 정이 철철 넘치

는 모습을 더는 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종환, 윤용기 선생님에 이어 선생님께서 더구나 할머니 남쪽에 외롭게 두고 가시니 더욱 더 안타깝고 슬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신념의 강자답게 고난과 탄압을 이겨내면서 신념의 고향에 가시어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셨고 가족등과 상봉도 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뵈이지 못했지만 선생님 신념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고이 잠드소서.

2002년 1월 10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고 신인영 선생님 약력

- 1926.12. 6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심
- 1943 청주상업학교 입학
- 1946 청주상업 4학년때 학원민주화투쟁으로 퇴학
전북중학교(현 전주고등학교) 3학년에 편입학
- 1947 미·소공동위원회 속개촉구시위 등과 관련 4학년때 퇴학
- 1948 서울대 상대 입학
- 1948.12 군산상업학교 편입학
- 1949 군산상업학교 졸업
변산 72블럭유격대로 입산활동-체포
- 1950. 3 석방
- 1950. 9 전북지역유격대 활동하다 의용군입대-인민군과 함께 북으로 후퇴
- 1953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 입학
- 1957 졸업
- 1961 교원이신 이영화님과 결혼-3남매 두심
- 1967. 3. 9 남쪽에 내려와 부모님 뵈고 돌아가다 체포
- 1968. 2 대법원에서 무기확정선고받음-98년까지 광주·전주·대전교도소로 옮겨며 복역
- 1997. 6 골수암 진단받음
- 1998. 3.13 32년 옥고 끝에 비전향으로 석방
- 2000. 9. 2 비전향장기수로 북녘으로 송환
- 2002. 1. 7 평양에서 운명하심

우리는 아버님을 잃었지만 인간 신인영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양계숙 민가협 양삼수후원회 회원

아버님 별세 소식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겠지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겠지요?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남편이 저를 끌어당겨 품에 안고는 제 등을 살며시 두들기자 비로소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어! 우리는 서로 성이 다른 아버지라 딸이지

만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다정해서 좋았다. 늘 마주 대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 하였고 변함이 없었지. 언젠가는 함께 산행도 하고, 가슴이 확 트이는 바다 구경도 함께 하고, 좋아하는 음악회, 보고 싶은 예술 영화, 연극, 오페라도 함께 가보고 싶었지.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딸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귀여운 손자 손녀도 안아 보고…….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가졌었나 보다. 그러나 그 많은 욕심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기도 하다. 내 나이 이제 한달이 지나면 70이고 마음은 아직도 젊지만 한 사람의 건강에는 한계가 있는 것. 젊은 시절에 목숨을 바친 수많은 내 친구들에 비하면 몇 곱절 더 많이 살기도 했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후회없는 삶이었기에 점점 욕심도 줄이고 후대들 속에서 희망을 보고 서서히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이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듯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 같구나…….”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은 1997년 말에 옥중에 계신 아버님이 제게 보내신 편지를 지금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아버님의 편지 묶음을 꺼내놓고 어느것을 읽을까 고민하지



▲ 생전의 신인영선생님과 양계숙 회원(사진 왼쪽으로부터 세번째)

못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펼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런 것일까요. 아버님 별세하셨다는 소식 듣는 순간 아버님의 글 마디마디가 아픔으로 짜여진 듯 애절하게만 다가오니 말이예요.

맨 처음 암이란 판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고 압담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오히려 나보다 훨씬 침착

하고 의연하시던 아버님 모습에 저는 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아버님은 편지에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염려하는 내 병은 너무 걱정 말아라. 불굴의 강인한 정신으로 암과 싸워 이길 것이다. 더구나 죽이려고 달려드는 비인간적 힘에 항거하기 위해서라도 보란듯이 살아남을 것이다. 너를 비롯해서 모두가 성원해 주는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아버님의 당당함에 오히려 제가 놀랐지요. 그토록 의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솟아나는지 경이롭기도 했고요. 병마의 고통까지도 묵묵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열적으로 앞날을 낙관할 수 있는 아버님의 여유가 몹시도 부러웠답니다. 늘 “우리 세대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분단의 고통을 안겨 주었구나.” 하고 안타까워하시며 마지막까지 통일사업에 몸바치겠노라 다짐하셨는데…….

함께 지낼 시간이 많아져 행복한 계획을 꾸미기도 전에 2000년 9월 복송이 결정되면서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어요. 속 좁은 저는 솔직히 송환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잠깐 가졌답니다. 복벽으로 떠나는 버스에 오르면서

몇 번이나 망설이는 아버님 몸짓 보며 그동안 결단력 있게 살아오신 아버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정리와 현실에 대한 울분과 냉철한 이해를 뒤섞어가며 아버님은 아픈 가슴을 보듬고 또 보듬으셨을 테지요. 그러나 아버님의 송환은 우리 시대의 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슬픔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었습니다.

아버님 복讖으로 가신 후 복을 오가는 사람들 통해 저희들의 소식을 전하고 아버님의 건강한 모습과 활발한 활동을 전해 들으며 흐뭇해했어요. 가실 때 그런 말씀 하셨죠. 평양에 가면 금강산에서 안내원이 되어 우리들을 초청해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저기 안내하겠노라고. 그런데 그 약속 어디에 두고 그리 바빠 가셨습니까? 아버님은 이제 정녕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겁니까?

남편이 제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님을 잃었지만 인간 신인영의 이름을 얻었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님 이름이 아니라 다듬어지는 역사라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의 시작이고 이 시작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어야 한대라고. 그것만이 아버님이 저에게 했던 약속을 되돌려 받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에 가는 날은 누구의 초대나 초청이 아니라 내 나라 내 산하를 보러가듯 가야 된다고. 아버님이 남긴 무언의 마지막 말씀은 이러한 것들의 완성이 아니겠느냐라고.

아버님 맞습니까?

저는 회의에서가 아니라 슬픔 때문에 눈물이 앞서는 지금 이 말들을 아버님의 이름을 통해 확인하고픈 소망으로 눈물을 닦겠습니다. 진정 내 눈이 눈물 없이 슬픔을 말할 수 있는 날 이 말들에 참다운 의미를 얻고 실천하는 실한 방법을 찾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운 아버님을 뵈러 금강산으로 가겠습니다.

아버님, 편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2년 1월 13일
그리운 당신의 막내딸 드림

- 양계숙님은 오랫동안 신인영 선생님을 후원한 돈독한 관계로 신인영 선생님의 수양대님이 되셨습니다.

서른, 다시 첫마음으로

문숙희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올해로 난 서른이 되었다. 돌아보면, 이십대에 나이였고 서른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질거라 기대했던 것 같다. 새로운 삶이라... 안정된 직장 and 행복한 가정? 하고싶던 일의 만족스런 성취? 아니 적어도 이십대에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삶과 나를 둘러싼 사회에 대한 술한 생각들과는 결별해 있을 거라 믿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소위 제도교육이라는 것을 받으며 내 인생의 궤적을 내 손으로 직접 그리기보다는 부모님과 선생님,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내 것이라 믿으며 살았던 것 같다. 고2, 문·이과를 나눌 때 취업에 유리할 거라는 담임선생님의 말대로 이과를 선택했고 결국 화학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다. 뒤늦게 나의 적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고, 과에서 4년을 곁들었다. 신입생으로 입학한 다음날, 나는 문학동아리인 운지문학회에 들었고 이 곳에서 4년을 지내면서 불확실하기만 했던 가치관의 기틀을 잡아 가게 되었다.

때는 92년, 노태우 정권 말기. 문학진영 내에서도 독재 타도와 반미 등의 말들이 나돌고 있었으며 민족문학, 통일 문학 담론으로 대변될 수 있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와 문학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개인 내면의 빗갈만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믿고 있었던 나는 노동의 현장과 민중들의 거친 삶들이 있는 그대로 형상화된 작품들을 읽고 적잖이 놀랐었고, 혼란은 시작되었다.

갓 스무살이 되어서 천착하게 된 질문,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어찌보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란 무엇인가?” “보람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세상의 아름다움만 수식하는 시보다 민중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표현한 작품에 더욱 감동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 눈뜨게 되었다. 자연스레 선배들과 시위현장에도 참여하고 사회과학 세미나도 하게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와 지금까지의 고난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학생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96년은 연세대 항쟁이 일어났던 해이며 개인적으로는 학생운동을 마치고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점이었다. 96년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일이 많았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정부의 도를 넘은 학생운동 탄압으로 후배들은 힘들어하며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당시 한총련 조통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애인의 끝없는 수배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 또한 학생운동을 마치고 이제 어떠한 무기를 들고 사회로 나갈까하는 힘든 고민에 빠져들었다. 결국 못다 한 문학공부를 해보자는 욕심으로 국문과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은 터널이라고 했던가?

수배당사자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수배자 애인을 두었다는 죄 아닌 죄로 나는 항상 경찰의 감시 대상이 돼야 했다. 도청과 미행은 물론 엄마가 운영하시는 가게까지 찾아왔고, 만나주지 않으면 재구속하겠다는 엄포는 예사였다. 학교 앞까지 찾아와 협박하기 일췌였고, 내 친구들의 자취방까지 몰래 찾아와 물건들을 뒤집어 놓고 가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다 지나간 일이라 추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시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하기 힘들 정도였다. 수배해제를 위한 1년 반 동안의 조계사 농성을 마치고 지금은 애인과 자유롭게 만나고 있다. 작년 2월 애인은 대

학을, 나는 대학원을 졸업해 현재 사진잡지사에서 일하고 있다.

애인의 수배생활 동안의 인연으로 민가협 집회에도 자주 참여하게 되어 어머님들과도 잘 알게 되었으며 민가협을 알리는데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양심수 후원회 편집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나의 삶, 나의 일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달라는 창희형의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을 써야 하나 한참 고민했다. 서른이 되는 2002년 0시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결국 나의 지난 이십대에 대해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앞에서도 좀 언급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십대의 고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나 자신에 대한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민에 대해 성급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찌면 내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질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이며, 쉽게 답을 내리기보다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되묻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서른은 지난 이십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힘들었던 이십대였지만 나에게 닥친 숙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풀려고 했다. 양심수 후원회원들과 함께 삼십대를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면 한다. ✎

회원 소식

기증

- 양심수후원회에 탁무권 운영위원장님께서 삼성 330만화소 디지털카메라와 팬티엄 셀러론 1G 컴퓨터 본체를 기증하셨습니다.
- 그리고, 박인석 회원님께서 CD-RW 16배속, 삼성 17인치 완전평면모니터 등 팬티엄IV 컴퓨터 1대를 기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후원

뉴욕민족학교 송학삼 교장 선생님께서 연말에 2000달러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후원금은 선생님의 뜻에 따라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 35명에게 4만원씩, 기타 양심수 55명에게 2만원씩 영치금을 보내는 데 정성껏 쓰여졌습니다. 나라사랑청년회에서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을 위한 신춘거리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 359,590원을 후원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구독권유

‘민족21’의 독자가 됩시다.

‘민족21’은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잡지입니다.

비전향장기수 박종린, 김영승 선생님께서 ‘민족21’ 독자사업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잡지를 보시지 않은 회원께서는 빠짐없이(?) 구독신청을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01 🌟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영등포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날' 집회·본대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연설(권오현), 결의문낭독(민가협 박경호(심재춘어머니)어머님) 등. 집회를 마치고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까지 행진, 정리 집회 - 권오현, 박인석, 김민정, 송창학, 김도균, 이승미, 이창희, 고광희 회원 함께 함.

🌟 연세대 학생회관 고를샘에서 있는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국연합 10주년 기념식 참석

🌟 민가협 구학협 조순덕 부회장님의 아드님 위영석님이 신부 이숙경님을 맞아 강동구 플라워 웨딩홀에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많은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화촉을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과 '2001 회원송년모임' 준비를 위해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작업을 시작함. 김민정, 김호, 한수정, 변의숙, 이창희, 고광희, 송창학, 노혁, 이승미, 양계숙 회원 등이 함께 하여 12월 13일에 끝냄.

02 🌟 종묘공원에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 등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중연대 주최로 '세계무역기구 쌀수입반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 민중생존권쟁취, 반전평화 미국반대'를 위한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민중생존권과 전쟁반대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노동자·농민정책을 규탄 - 이창희, 김 호, 송창학, 한수정, 고광희, 서정민갑 회원 등이 대전양심수후원회와 함께 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일부터 '인권 위법에 따라 진정된 울산구치소, 청송감호소, 대구교도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련자 면담에 나선다'고 밝힘.

03 🌟 서울지법 형사14단독(신광렬판사) 심리로 강정구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2차공판이 526호 법정에서 열림. 검찰의 직접 심문과 변호인의 반대 심문에서 강정구교수는 통일연구의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이행과 통일운동의 정당성, 만경대정신의 항일운동과 그 유자녀교육등, 민족정기차원의 긍정적 내용설명등 검찰을 압도함.

🌟 낙성대 '만남의집'에 회장, 간사, 수습간사가 함께 하는 주례집행모임. '후원회소식', '운영위원회', '시와 노래의 밤', '송년모임' 준비등 논의

🌟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박영렬) 이른바 '수지 김

사건'의 조작·은폐 의혹을 받고있는 87년 당시 사건을 조사한 당시 해외담당 부국장등 안기부직원을 소환 조사하고 경찰수사중단과 관련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한 뒤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등과 경찰 관련자를 처벌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04 🌟 2001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범민련 남측본부 김규철 부의장과 김세창, 박종화, 전상봉씨 등 범민련 간부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 - 오후 6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범남본 이종린의장과 성원들, 민가협,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통일광장, 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창동 70여명 마중. 환영식을 열음 - 이번 보석에서 빠진 임동규 광주·전남 의장 석방에 총력 다할 것도 다짐

🌟 전국연합, 민주노총등 전국민중연대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악법 저지, 파병반대, 민중생존권 보장 -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에 들어간다고 국가보안법폐지, 민중생존권 보장등을 촉구하며 8일까지 시한농성에 들어감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소돼 중형이 확정되었던 19명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임.

05 🌟 김호현, 이정태 운영위원, 간사 이창희, 고광희, 편집위원 이승미 회원 등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임동규선생님을 면회하고,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기독교병원에 입원중인 회원 정형근을 면회하고, 진재영 애인 이정석님을 '후원회 소식'에 실기위해 취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태 운영위원과 이창희 간사는 교통사고로 상을 당한 고 김수정 회원에게 문상다녀왔습니다. 고인의 영전에 삼가명복을 빌었습니다. 다음날 모두는 광주교도소에 있는 진재영님과 최진수님, 황혜로님을 면회하였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문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01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여성법정'에서 가브리엘·커도·맥도널드 재판장은 총 24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위안부제도는 일본 정부와 군대에 의해 입안·설치되고 관리·유지·조장되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은 56년동안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 공식적으로 충분히 사과하지 않으면서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정부에 있다 고 판시
-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집회에서 연설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인하대 김영규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교수가 대우차노조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집회를 주관했다해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노동운동으로 보고 징계할 수는 없다' 며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 이라고 밝힘.
 - 06 ✱ 민가협 405회 목요일집회. 여는 말-권오현: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내용, 인권운동사랑방 유은숙씨-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김규철 선생-출소인사, 이관복선생' 삼일문' 관련 발언, 박경호어머니-반테러법 반대성명서 낭독
 - ✱ 11.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파행운영과 관련 김수환 추기경등 사회각계원로가 정부의 무관심과 일부부처의 이기적 견제 때문이라며 빠른 시일안 정상화 촉구
 -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기획모임을 낙성대에서 가짐. 이승미, 노 혁, 고광희, 이창희, 이정태, 송창학 등이 함께 함.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과 송년모임 준비, 각 소모임에 대해 논의함.
 - ✱ 시사모임 진행, 한상권교수님의 역사교실 준비함. 한수정, 송창학 회원이 함께 함.
 - 07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청학련(소위 인혁당 재건위사건포함) 명예회복 및 보상공동접수 기자회견 을 민청학련 운동계승사업회와 인혁당대책위 공동으로 열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접수 - 천주교 인권위는 인혁당 사건을 다룬 책 '사법살인 - 1975년 4월의 학살' 출판기념식과 미시를 명동성당에서 드림
 - ✱ 여의도 한국노총회의실에서 '김현희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 1차회의를 대책위 주관으로 열림. 앞으로 진상규명 서명운동 등 폐기로 함
 -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범민련 사건 증인신문 열림. 민화협 손장래 상임의장과 전국연합 김이경 사무국장, 문화예술단체 소속 김보임씨 등 증언
 - ✱ 양심수후원회 13차년도8차운영위원회 열림.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회원송년모임', '회원역사강좌' 등 협의. 활동·재정보고 등 있었음
 - ✱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과병동의안' 국회통과에 합의해 서울대생 50여명이 정문앞 도로를 점거, 기습시위를 벌임
 - 08 ✱ 범민련 남측본부후원회 1차정기총회 및 1주년 기념식이 연세대 학생회관 식당(고를샘)에서 열림. 임원선거(연임), 사업계획안승인 등 2부문화공연, 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 인사, 이종린, 임방규, 권오현 축사 등 진행. 권오현, 김재선, 신현익, 이승미, 노 혁, 한수정, 고광희 회원 등이 함께 함.
 - ✱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자동)주최로 '민족일보 조용수사장 40주기 추념 학술회의' 를 열다. 발제자-한상범교수(동국대)는 조용수사장의 사형언도와 집행은 '사법살인' 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함. 이철호(여수공대), 홍석률(서울대), 서중석(성균관대)교수등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섬
 - ✱ 종로 YMCA앞에서 오후 4시부터 1시간 진행하는 '6.15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철폐 및 양심수 석방' 을 위한 토요캠페인에는 이득행, 양계숙, 노 혁, 이창희, 구준서, 변의숙, 한수정, 고광희 등이 참가하고, 구로 청년회가 함께 하였음
 - 09 ✱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 주관으로 새해부터 문을 열 역사강좌 오리엔테이션이 강사로 초빙된 한상권교수 지도로 덕수궁에서 회원 이득행, 모성룡, 송창학, 주경임, 한수정, 이창희, 고광희, 변의숙, 이승미, 김도균, 모지희, 노 혁, 도은주, 양계숙, 김기현, 홍상희, 김현애, 유선화등 19명이 함께한 가운데 있었음
 - ✱ 저녁 7시에 홈페이지 모임이 장재영 회원집에서 열림. 고광희, 이득행, 장재영, 양계숙, 김기홍 회원 등이 함께 함.
 - ✱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박영렬)는 이른바 '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의혹과 관련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작권남용, 직무유기, 범인도피혐의 등 적용 사전구속영장 신청
 - 10 ✱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양심수후원회 회장, 간사, 수습간사 월요일집행부주례모임 - 양심수후원회 회원가입카드제작, 63명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사진집 출간에 따른 문제, 시와 노래의 밤, 송년모임 등 당면과제 협의
 - ✱ 김재원님 '만남의 집' 에 오시어 봉사활동하심 - 김재원님은 복송된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이 만

남의 집'에 계시는 오랫동안 선생님들 식사와 집 안관리등 헌신을 해오셨고 선생님들이 가신 후 다시 2001년 봄부터 1주일에 2일씩 오시어 애써주시고 있음

☞ 연신내 청구성심병원에 입원하신 조석귀 할머니 문병다녀옴 - 권낙기선생님 어머니이신 조석귀 할머니는 지난 7일 집 계단을 내려오시다 왼쪽 발목 골절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이십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사건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최종길 서울대교수가 중앙정보부 직원이 바깥 비상계단에서 떠밀려 사망케 했다'는 증언을 중정 핵심간부가 했다고 발표

☞ 소파개정국민행동과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회원들은 용산구 '개피탈'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의 아파트 건설계획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용산 미군기지 52번 게이트 앞에서 용산미군기지 전면반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짐

☞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결의대회 열림

☞ 광인석 회원님이 CD-RW 16배속, 삼성 완전평면 17인치 모니터 등 펜티엄IV 컴퓨터 1대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모임방에 기증하셨습니다.

11 ☞ 민주공원추진위원회 제3회 추진회의 윤현궁앞 음식점 '강호'에서 열림. 민주공원후보지 선정문제 등 논의 박정기, 고 은, 오종렬, 김삼웅, 이돈명, 백기완, 이해동, 권오현위원과 윤명선 사무국장 함께 함

☞ 동국대 기획인사처는 대학측이 재단측에 '만경대 방명록'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강정구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공식요청했다고 밝힘

12 ☞ 인사동 '문화의 거리'에서 김현희 KAL기사간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준)주최로 KAL기사간 진상규명 서명운동 본부결성식 및 서명운동 벌임

13 ☞ 406회 민가협 목요집회 여는 말 임기란 상임의장, 성대노래패 '아우성' 문화공연, 심재춘씨어머니 박경호님-아드님에게 보내는 편지낭독 등

☞ 여의도에서 2001민족통일 대축전에 참가했던 대표들 송년모임이 민화협 주관으로 열림

☞ 4월혁명회 민족학교 12번째 강의 '통일방안'논의

의 변천사' (노중선-4월혁명회 사무총장)이 민족학교 1기생에는 민가협 어머님들과 양심수후원회 원들도 여러 명 함께 함

☞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대강당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1 인권상 시상식이 있었음. 수상단체는 중국조선족 한국초청 사기피해자협회(대표 이영숙)

14 ☞ 동국대 강정구교수 직위해제 방침과 관련 강정구교수 무죄석방대책위 대표들 동국대 허천택부총장과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김선근교수를 만나 사립학교법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려는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법판결이 있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특히 파렴치범이 아닌 통일문제 등 양심적 지식인의 확산있는 행동을 학교에서 보호는 못할망정 미리 제재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직위해제방침 철회를 촉구. 대책위 홍근수, 권오현 상임대표와 박기하 사무국장, 2002 동국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사회대 학생회장 함께 함

☞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10주년기념 토론회 '격변하는 정세와 민족민주전선운동의 발전전망' 주제로 열림

15 ☞ 민가협 '열세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한녕 113' 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림. 김정환출판과 명계남, 이광기 공동사회로 열린 이 인권콘서트는 안치환과 우리나라, 문성근씨가 출연했고 이은미, 전인권, 크라이넛, 양지운씨 등이 나와 노래와 대사로 양심수와 인권을 말하고 국가보안법폐지를 표현하고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원들은 도서출판 '창'에서 펴낸 송환된 63명 비전향장기수들 사진집 '우리 다시 꼬옥 만나요'를 판매하고 후원회 가입카드를 나누어 주었음. 공연 마지막에는 민가협 어머님들과 장기수선생님들이 무대에 올라 '함께가자 우리의 길'을 합창하며 국가보안법과 양심수가 없는 세상을 염원했음. 후원회원 40여명이 장충동 족발집에서 뒤풀이.

☞ 민주노총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대위 주최로 대학로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 장충체육관까지 행진

16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1 회원송년모임이 출소한 장기구금양심수, 민가협어머님들, 사회단체 대표들과 후원회원 등 11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광화문 새서울 주물럭에서 있었음. 김호현 운영위원

의 사회로 민중의례에 이어 권오현대표의 인사말과 오신분 소개(특히 김규철, 강정구, 전상봉씨 등 통일추진 참가하고 돌아와 구속·기소 재판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난 분들), 그리고 임기란, 이종린, 임방규, 오종렬의장 등 축사, 김 호회원의 장기수선생님들께 드리는 편지, 고광희간사의 어머님들께 드리는 편지낭독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로 조출한 음식을 나누면서 이창희간사 사회로 민족시인 이기형선생님의 해를 보내고 또 맞이할 건배사에 따라 술잔을 함께한 다음 장기수선생님들, 어머님들, 후원회원들의 경연(?)이 벌어졌고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함께가자 우리의 길'을 합창하며 송년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송년모임에는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입원중이신 정순덕선생님을 인천지역 정순덕선생님 후원회 정형서(새안의원 원장) 회장님과 이광우 사무국장님이 모시고 함께 오셨고 황영태선생님도 불편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음성에 계신 정순택선생님께서 '미군은 가라!'라고 쓴 어깨띠를 하고 오셔 눈길을 끌었습니다.

✱ 민가협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사회를 보다 오른쪽 팔꿈치뼈를 다친 최광기님이 15일 밤 서울 용산중대부속병원에 입원하여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최광기님은 '시와 노래의 밤'에 여러 해 동안 명사회자로 애써 주셨는데 큰 상처를 입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천주교 장기수가족후원회(대표 노진민) 송년모임이 명동 '한·하늘·땅'에서 장기수선생님들과 회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림

17 ✱ 양심수후원회 월요주례모임 - 후원회소식 122호 출판준비, '우리 다시 꼬옥 만나요' 사진집 보급 문제, '시와 노래의 밤'과 '송년모임' 평가 등

✱ 낙성대 '만남의 집'에 김재원님 오시어 선생님들 식사준비하심

✱ 유가협 의문사지회 회원과 그 외 의문사가족들 중로 수송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의문사진상규명의 역사적 의의에 맞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감

18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위원장퇴진을 요구하며 유가협 의문사지회와 의문사가족들이 농성중인 수송동 사무실방문, 가

족들 만남. 권오현, 문덕형 상임위원등 만나 진상규명사업 진척되지 않은 점 지적.

✱ 양심수후원회 편집모임(유영순, 이승미, 박인석, 김 호, 고광희, 이승미, 오영순 회원 등이 참여함)과 회원사업모임(변의숙, 노 혁, 박인석, 이창희, 고광희 회원 등이 참여함)이 인사동에서 7시에 열림. 편집모임에서는 '후원회 소식'을 더욱 알차고 신속하게 내자고 하였으며, 첫 모임인 회원사업모임에서는 앞으로 잘 해보자고 결의를 다짐.

✱ 기독교회관 2층 뷔페식당에서 열린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 2000호 발행기념 및 인권운동사랑방 송년모임에 함께 함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조선일보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02년 1월 30일 언론회관 20층에서 '조선일보 민간법정'을 연다고 발표. 추진위 상임대표로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홍근수, 문규현, 김동인 공동대표와 범민련 이종린의장, 전국연합 오종렬의장, 통일연대 한상렬상임대표 등으로 하고 민간법정 배심원단으로는 언론·노동·농민·청년·의사·약사·주부·교사·교수·문인 등 각계 각층 50여명으로 하고 배심원당장은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장이 맡기로 함

19 ✱ 이른바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14일에 풀려난 정진무, 황우정씨 등 석방환영모임이 단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학부모님과 1심에서 풀려난 구본승씨등 동료들, 정연오, 김규철, 권오현등 대책위원회, 부여농민회장과 여러분과 단국대 학생회간부와 학생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림. 석방자 인사말과 김규철, 권오현의 환영말, 문화공연등이 있었음

✱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박영렬)는 '수지 김 피살은폐·조작사건' 수사결과를 발표, 87년 당시 수지 김 남편 윤태식의 주장이 의심스럽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지시에 따라 '여간첩을 이용한 남북미수사건'으로 조작 기자회견을 열었고 윤씨가 부인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고서는 이 사실을 숨겨왔다'고 고백함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옥서 부장판사)는 1980년 신군부치하에서 계엄포고령 위반혐의로 기소돼 유죄확정됐던 한화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6명에게 내란 상형

- 에 저항은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
- 20 ✎ 407회 민가협 목요집회 여는 말-임기란 상임의장, 국가보안법폐지·국정원해체 발언-권오현, 민주노동당 정명아·금수경님이 1999년 민주노총집회에서 배포한 유인물로 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한 발언, 감옥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께 올리는 편지글 낭독 등이 진행됨.
후원회소식 최종교정, 사진점검 등
- ✎ 향린교회에서 4월혁명회 월례발표(김남식-미국테러후의 남북관계)와 민족학교 1기생 졸업식 및 송년모임이 있었음
- ✎ 서울지법 윤남조 판사는 형사실무연구회에서 ‘불구속재판의 실질적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구속을 형벌수단으로 이용하면 재판을 하기전에 형이 집행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결국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원칙, 당사자주의, 공판주심주의가 유명무실해진다’며 현구속제도 비판
- ✎ 12월 나라사랑청년회가 신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하며 거리에서 모금한 359,590원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정태, 송창학, 고광희, 이창희 회원 등이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사회를 보다 실추하여 행사중 팔골절상을 당한 최광기님을 용산 중앙대병원으로 문병다녀옴.
- 21 ✎ 4·19혁명이후 사회당 조직부위원장과 교양부장 등을 맡아 사실상 사회당을 지도하다가 5·16군사쿠데타와 함께 혁신계 대탄압으로 구속·기소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 위반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61.9.14) 같은 해 12.21일 사법살인 당했던 최백근선생 40주기를 맞아 망우리 묘역 고인의 묘소에서 옛 동지들 20여명이 모여 추모모임을 갖다
-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현부장판사) 심리로 범민련 김규철 부의장등 공판이 열려중인 심문이 있었음. 민족공동행사 종단측 집행간부였던 변진홍 성공회대 교수와 민족21 안영민기자는 증언에서 통일추진 개막식 참관과 관련 법정에 세우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며 책임이 있다면 공동행사 지도부가 져야하지 또 개막식 참관자 가운데 특정한 사람만 죄를 묻는 것도 법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함

- 22 ✎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토요캠페인’을 YMCA앞에서 양심수후원회 책임으로 진행.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서민노회 대책위등에서 함께 함. 이승미, 노혁, 한수정, 김 호, 이창희, 고광희, 권오현이 함께 함
- ✎ 경희대 복지관에서 ‘통일광장 2001 송년모임’이 장기수선생님들과 사회단체 대표와 청년학생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리어 송환선생님들의 영상, 청년학생들의 문화공연등이 있었음. 권오현, 이정태, 박인석, 변의숙 회원등이 함께 함.
-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위의 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의문사 유가족들이 6일만에 농성을 풀었음. 이보다 앞서 양승규위원장과 백승현변호사를 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7명의 상임위원들이 ‘기간연장을 포함한 법개정과 위원회 활동기조를 바꾸기 위한 상임위원단의 재편성이 요구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고 백승현변호사, 안병욱교수, 이석영교수 등 비상임위원이 사퇴서를 냈음
- 23 ✎ 서울중앙병원 영안실로 故 송건호 전 한겨레신문 사장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동아일보 수석 논설위원과 편집국장으로 있으면서 ‘동아언론수호투쟁’에 따른 기자회견에 항의 사퇴했고,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을 주도발행인겸 편집인, 회장등을 역임했던 송건호선생님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 모진 고문을 당했던 후유증으로 불치의 ‘파킨스씨 증후군’으로 투병해오시다 21일 새벽 운명하였습니다. 양심수에 대해서 그리고 양심수후원회에 대해 큰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던 고인은 24일 ‘청암 송건호선생 사회장’으로 서울중앙병원에서 영결식을 갖고 광주 5·18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후원회 소식’ 122호 발송작업을 중계동 장재영 회원 집에서 장재영, 고광희, 변의숙, 김도균, 송창학, 이창희, 한수정 등이 함께 함
- 24 ✎ ‘후원회 소식’ 발송함.(국내 1037통, 국제 15통)
- ✎ 후원회 집행부 월요주례모임 - ‘후원회소식’ 123호기획, 홈페이지 가동관련자료보강 문제등 기타 협의
- ✎ 서울지방법원 형사종합민원실에 권두섭 민주노총 법규차장(변호사)과 민변 노동위원회 김선수변호

- 사등이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7만7천명 서명명단과 함께 보석신청서를 내다
- 26 ✨ 신인영선생님 어머님이신 고봉희할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회원들이 보고싶어 여러번 전화를 걸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언제나 정성껏 돌보아주셨던 따님(신옥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중국동에서 외롭게 혼자 계신 할머니께선 아드님 계신 곳에 가시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건강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신 옥 원장님과 함께 병원에 있었으며 지금은 장애복지시설 '노아의 집' 총무로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 헌신하고 있는 성효진회원 주선으로 식사를 함께 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득행, 양계숙, 변의숙회원과 권오현 함께 했습니다
- ✨ 서울시립대에서 '6·15공동선언이행,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성사, 문재통과 함께 하는 송년한마당'이 통일연대 서울지역 주최로 열림. 권오현, 이정태, 고광희, 김 호, 소수영, 이창희 회원 등이 함께 함
- 27 ✨ 408회 민가협 목요집회 사회-임수경, 여는말-임기란 상임의장, 한총련 9기대의원 경기대 총학생회장의 출소인사, 올 한 해 있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주요사건 정리사회자, 신동호시인의 '어머님들께 바치는 시' '겨울나무' 낭송, 성균관대 노래패 '하우성'의 문화공연, 마지막으로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손에 손잡고 부른 후 전체사진을 찍고 '어머님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던 2001년 마지막 목요집회를 마무리함
- ✨ 전대협동우회는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뷔페식당에서 해마다 그러했듯이 민가협, 유가협, 통일광장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송년모임을 갖고 음식대접을 함
- 28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파행운영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오종렬, 홍근수, 이규재, 권오현외) 간담회를 열고 '철저한 의문사진상규명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전면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갖다. 특히 현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서 조사권 강화,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을 촉구함
- ✨ 연세대 학생회관(고를샘)에서 '민중연대·통일연대 합동송년모임' 갖다. 이정태, 변의숙, 이승미, 송창학, 한수정, 고광희, 이창희 간사 등 후원회원도 함께 함
-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용산 미군기지 아파트건설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임
- 29 ✨ '6·15남북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전원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토요캠페인'을 YMCA앞에서 벌임. 양심수석방등 서명운동도 함께 한 이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이 100,000원을 모금함에 넣는가하면 세모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많은 서명을 해주었음 - 김수룡, 변숙현선생님이 함께 하시고 변의숙, 이승미, 박인석, 김 호, 김민정, 한수정, 송창학, 구준서, 고광희, 이창희, 권오현 등 양심수후원회원과 구분승 등 단국대 조직사건대책위, 홍순석 등 한청회원, 김상도 국보법폐지연대회의 간사 등이 함께 함
- ✨ 홍익대에서 '6·15공동선언 이행과 2001 청년학생 송년한마당'이 사회단체대표와 전국에서 온 한총련 소속 학생 등이 함께 한 가운데 한총련, 범청학련 주관으로 열림
- 30 ✨ 민주노총은 2001년 한 해동안(12.28일 현재) 241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고 아직도 45명이 수감상태라며 92년 노태우정권 당시 275명 구속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구속자수로 현정권의 노동자 탄압 상황을 밝히고 규탄함
- 31 ✨ 낙성대 '민남의 집' (회원모임방)에서 김규철, 노중선, 진관스님(양심수후원회 감사)은 양심수후원회 13차년도 후원사업 및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감사를 하였음. 후원회 성격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회계에서도 정당하고 차질없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 전국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47명의 양심수에게 1차 연하장 발송
- ✨ 영치금을 양심수 90여명에게 보냄. 뉴욕에게 계신 민족학교 교장 송학삼선생님께서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억과 양심수에 대한 격려로 2000달러를 보내오셔서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 35명에게 4만원씩, 나머지 양심수들에게 2만원씩을 보냄.
- ✨ 출소장기수선생님들과 북녘가신 장기수선생님들의 사모님들, 양심수 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 ✨ '말'지 4권과 '민족21' 10권을 양심수에게 보냄.